



이해기 화가 금화전시회 서울 시간동 갤러리서 10월 30일까지

금가루로 그린 부처님 생애

“금가루를 이용하는 금화에서 평생의 업을 찾은 것은 10년전이지요. 지난 3년전 선보인 첫 전시회에서는 단순히 금가루로 평면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이번에는 금가루를 여백에 깔아 원근과 명암을 표현하는 새 입체 기법을 고안해 봤습니다.”



금가루를 여백에 깔아 명암을 표현한 '수하탄생' (위)과 '성등정각' 아래에 있는 이해기 작가.

필사도를 비롯해 정교하면서 격을 갖춘 그의 불화가 호평을 얻었지만 그는 10년전부터 채색작업을 중단한 채 금색그림에 몰두해왔다. 동국대 미술학과 재학중 불화의 감동이 그를 불교로 이끌었고 화가로서 불교미술과 불화로 관심이 모아졌던 것. 고려시대 불화 기법인 금니선묘화(金泥線描)에서 출발해 자신만의 독특한 금화의 세계를 일구는 이씨의 두번째 금화전시회가 서울 '시간동 갤러리 126-1'에서 10월 30일까지 열린다.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 생애를 금화에 표현한 그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 3년간 작업한 금화 24점을 벽에 걸었다. '미아타락' '천상천하유아독존' '쌍님열반' '화엄대법' 등 소품과 대작이 섞여 있다. "우리 전통 불화는 선(線)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양과 선의 강약으로 입체감을 표현했지요. 그러다보니 질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금을 여백에 얇게 깔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방법은 일단 극적인 분위기와 입체감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작품이 '성등정각'이다. 따로 그리지 않고 금가루를 화판에 깔아 표현한 광배 부분은 몽환적인 입체감을 보여준다. 현재 외국인 화교 교사인 부인 때문에 중국 북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씨는 요즘도 매일 하루 8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 붓으로 접착제를 바른 금가루를 묻혀 금화를 그린다. 금화는 다양한 인물과 자연

배경의 묘사가 세밀할뿐더러 기법상 수정이 불가능한 정교한 작업이지만 그는 한번에 1시간넘게 무릎을 꿇은 채 종이와 붓에 열중한다. 하루 8시간 꼬박 그러다 가로 48cm 세로 45cm크기의 작품 한 점을 완성하려면 두세달씩 걸린다. 선하나 빠뜨리면 두세달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조심스런 작업이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작업실에서 혼자 예불과 참선도 한다.

부처가 깨달음을 증생에게 설법하는 장면인 '화엄대법'을 시작으로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그린 작품마다 불화의 기법도 조금씩 달라진다. 초기 작품은 전통 사경화처럼 세밀이 화려 가독한 평면적 공간인 반면, 근작일수록 문양의 선과 강약을 통해 마치 서양화같은 입체감이 살아난다. 전통을 살리면서 현대 감각을 갖춰 금의 느낌을 살리는, 이씨 특유의 금화 기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이것들을 뛰어넘는 이씨의 또 다른 변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앞으로는 대작(160cm×14cm)을 주로 그림 계획입니다. 현재 고행상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과 혹은 고행상을 그림 것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혹은 불성을 부처로 생각하고 그리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주제로 작업을 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오브제와 대상을 등장시킬 것입니다."

3-4년 정도 더 중국에서 머물며 작업에 몰두할 계획이라는 이씨는 내년 4월 국내에서 한 차례 더 기획전을 가질 예정이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중 불상 61점 한자리에

서울대박물관 '중국 불교조각 1500년 특별展'

육조시대 이후 청대에 이르는 1500년간 중국서 제작된 각종 불상 58건 61점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대박물관(관장 송기호)은 대만 국립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대만 타이베이 내 여러 기관이나 개인 소장품을 대여한 '중국 불교조각 1500년 - 불상, 지혜와 자비의 몸' 특별전을 12월 22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박낙규 전임 관장이 지난해 초 대만 국립역사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곳 관장과 합의함에 따라 성사됐다.

출품작 중 북위 시대(北魏, 386-534) 석회암으로 제작한 아난두(阿難頭, 아난존자의 머리 조각)는 제작 시기가 빠른 작품에 속한다. 석회암으로 제작한 이 불상(높이 55cm, 개인 소장)은 허난성 뤼양(洛陽)의 룡문석굴(龍門石窟)의 연화동 유출품으로 알려졌다.

아난은 부처의 가장 젊은 제자인 까닭에 불교조각에서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통 나타

나며, 이는 지혜 재일로 알려진 가슴이 노화된 모습으로 표현되는 점과 대비된다. 이번 아난 두 역시 주름살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이국적인 외모가 인상적이다.

선비족이 세운 북방의 강자 북위가 두 쪽으로 세포분열해 성립한 왕조 중 하나인 동위(東魏, 534-550) 작품으로는 불일상(佛立像, 석회암, 높이 92cm)은 광배가 모두 파손됐지만, 머리에는 작은 나발을 촘촘히 표현했고 온화한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돋보이는 출품작이다.

북제(北齊) 시대 석회암제 반가사유상(半伽藍像, 높이 65cm)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78호와 83호 금동반가사유상에 익숙한 한국인이라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당대 백대석으로 만든 십일면관음두(十一面觀音頭, 높이 48cm), 원·명 교체기 목재 나한좌상(羅漢坐像, 높이 117cm) 등도 눈여겨 볼 만한 작품으로 꼽힌다.

김주일 기자

춘천 불교방송 개국 5년 기념 27일 봉덕사에서 '가을 음악회'

춘천 불교방송 개국 5주년 특집 봉덕사 가을 작은음악회가 '이종만의 가을 음악여행'을 주제로 강원도 춘천시 봉덕사에서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부터 90분간 펼쳐진다.

출연진은 리더싱어 이종만씨를 비롯해 박

필진(드림), 박태진(베이스), 김태식(기타), 조은아(신디사이저), 박은주(피아노) 등이다.

가수 이종만의 단독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공연에서 이씨는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오늘은 좋은날' '당신을 존경합니다' 등 찬불가와 대중가요 15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성악가 유현주씨도 찬조출연해 찬불가와 클래식 성악곡 등 3곡을 선사한다.

김주일 기자

詩書로 떠나는 임지기행 24



두타산 관음

정인성 시인

도심의 지하도를 건너다
늘푸른 스님과 스쳐 지나가
삼백삼십 구멍으로 새겨진 문양
두타산 가을밤 달빛처럼 환하다

관음암 늪은 기화지봉을
서그럭 서그럭 밟고 지나면
몇 해 전 가을밤의 달빛 냄새로
휘적 휘적 걸어가서는 스님의 뒷 모습이
고요하고 서늘한 산속의 절집 같다.

관음암(觀音庵)-조촐한 규모가 더욱 정겨운 암자. 동해에서 임지기 미당으로 떠오르는 달빛이 그 어느 곳보다 크고 밝다.

그림: 이상배 화백

원주생식은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ife.co.kr

원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차, 담배, 담배, 담배 22종 31.9%
보신탄,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생식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실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자연의 건강한 맛에 빠져보세요 원주생식 2개월분 9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김은풍, 김은계, 김은희의 영양 원주생식 2개월분 90,000원	친위의 영양으로 알려진 하말리아 식청 1kg 500,000원	맛과 영양에서 탁월한 원주생식 ▶원주생식(1kg) 25,000원 ▶원주생식(500g) 20,000원 ▶원주생식(250g) 25,000원

전국대리점 모 집 중 (무상사)
주문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촌2동 신28-3번지
소비사상점 (053) 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무상사)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서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 출간!!!

심명 99절의 한 소절, 한 소절이 이름 그대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자비평명들이다. (...) 이 심명은 언어와 문자이면서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주옥같은 법문이다. 한 소절, 한 소절에 담긴 범용 선사의 뜻을 잘 관조하여 영산회상에서 가설 존자가 지었던 미소 짓길 바라마지 않는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심명 서문 중에서...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통, 1만여 공안 도리를 풀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명승,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통) 과 (바로보인 선문명승)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소인의 입과 손이 담긴
우리 민속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홍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8,000원 기본 배수에 2500원 (5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이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